



## 37호 Newsletter Contents

### 과편협 소식

- 과편협 제11차 2021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온라인 개최.....2

### 기 고

- 우리나라 연구자를 위한 올바른 COI 관리.....8
- Authorship과 관련된 이슈..... 10

발행일: 2021년 3월 31일

발행처: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회

발행인: 허 선

편집인: 서태설

편집위원: 이현정, 윤지수

연락처: +82-2-3420-1390

URL: <https://www.kcse.org/bbs/newsletter.php>

## 01. 과편협 소식

# 과편협 제11차 2021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온라인 개최

지난 1월 22일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과편협)의 제11차 2021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과편협 회원 및 비회원 편집인 8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기조강연, 학술대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허선 회장의 개회사로 정기총회가 시작되었고, 이우일 과총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후 여러 분야의 공로자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는데, 지난 2년간 *Science Editing*에 게재되었던 논문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논문의 저자인 김지현 이화여대 교수가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우수 강의상은 지난 1년간 과편협 교육 및 워크숍에서 강의를 한 연사 중 김형순 인하대 교수가 수상하였다.

김수 기획운영위원장이 의제로 제안한 2020년 사업실적보고와 세입세출결산(안), 2021년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원 인준(안)은 모두 승인 처리되었다. 감사 보고에서는 “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Scopus 선정자문 한국위원회 역할을 잘 수행하고 여러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수행한 점이 고무적이다.”라고 평가되었다.

올해의 기조 강연은 “수리 모델링으로 분석한 COVID-19 대유행”이라는 주제로, 정은옥 건국대 교수를 초청하여 수리 모델링을 활용해 ‘코로나 종식 예측 모델’을 만들고 이를 코로나19 대응 정책 결정에 적용하는 과정에 대한 흥미로운 발표를 들 수 있었다. 구두 발표는 서태설 KISTI 책임연구원이 “블록체인과 지식공학을 이용한 개방형 동료심사 시스템 개발”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형태의 동료심사 시스템에 대한 최신 동향을 발표해 주었다.



▲ 2021년 과편협 제11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단체 촬영

### 과편협 회의 개최

날짜	회의명
2021. 2. 24	2021-1차 정보관리위원회의(온라인)
2021. 3. 5	2021-1차 임원회의(온라인)

### 과편협 회원동정 / 회원현황

#### 회원동정

##### <특별회원 소식>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김재수 원장(제 8 대) 취임 (2021. 3. 23)

##### <단체회원 등재 소식>

- 대한직업환경의학회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ESCI, Scopus 등재
-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KIEAE Journal』 KCI 등재
- 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Scopus 등재

##### <단체회원 예정 행사 소식>

- 한국물리학회, 2021년 봄 학술논문발표회 및 제97회 정기총회  
일시 및 장소: 2021년 4월 21일~23일, 온라인 개최
- 한국식물병리학회, 2021년 춘계 온라인 학술대회  
일시 및 장소: 2021년 4월 22일~23일, 온라인 개최(서울대학교)
- 대한수학회, 신진 연구자를 위한 심포지엄-수확분야 신진연구자의 네트워킹 구축  
일시 및 장소: 2021년 4월 28일, 온라인 개최
- 한국우주과학회, 2021년 봄 학술대회  
일시 및 장소: 2021년 4월 28일~30일, 여수 히든베이
- 대한수학회, 2021년도 대한수학회 봄 연구발표회  
일시 및 장소: 2021년 4월 29일~30일, 온라인 개최
- 한국막학회, 2021 한국막학회 춘계 총회 및 학술발표회  
일시 및 장소: 2021년 4월 29일~30일, 서울 연세대학교 공학관
- 한국영양학회, 2021 한국영양학회·한국식품영양과학회 공동 춘계 심포지엄-코로나19 시대의 식품과 영양  
일시 및 장소: 2021년 4월 30일 09:30-12:30, 양재동 aT센터 세계로움/온라인 생중계
- 한국영양학회, 2021 한국영양학회·한국식품영양과학회 공동 춘계

##### 심포지엄-알로에와 면역

일시 및 장소: 2021년 4월 30일 13:30-16:10, 양재동 aT센터 세계로움/온라인 생중계

- 대한중환자의학회, The 41th KSCCM Annual Congress·Acute and Critical Care Conference 2021 (제41회 대한중환자의학회 국제 학술대회)  
일시 및 장소: 2021년 4월 30일~5월 1일, 온라인 개최(사전등록기간: 4월 19일까지)
- 대한중환자의학회, 제15차 중환자의학회 기초과정 연수교육(BC-CRC, The 15th Basic Critical Care Review Course 2021)  
일시 및 장소: 2021년 5월 2일, 온라인 개최(사전등록기간: 4월 20일 까지)
- 한국공업화학회, 2021 한국공업화학회 춘계 학술대회  
일시 및 장소: 2021년 5월 12일~14일, 부산 벡스코
-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봄 학술대회  
일시 및 장소: 2021년 5월 14일, 온라인 개최
-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2021년도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춘계학술 발표대회  
일시 및 장소: 2021년 5월 14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생화학분자생물학회, KSBMB International Conference 2021  
일시 및 장소: 2021년 5월 25일~27일, 부산 벡스코
- 한국수자원학회, 2021년 학술발표회  
일시 및 장소: 2021년 6월 3일~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 대한설비공학회, 대한설비공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2021년도 하계 학술발표대회  
일시 및 장소: 2021년 6월 22일~25일, 휘닉스 평창
-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21 제36회 제어로봇시스템학회 학술대회 (ICROS 2021)  
일시 및 장소: 2021년 6월 23일~25일, 여수 소노캄

〈신임 편집위원장〉

- 곽연식(경상대학교), *The Plant Pathology Journal*, 2021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 고재현(한림대학교), *새물리*, 2021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 김선자(청운대학교), *대한수학회보(Bulletin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 2021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 김인중(제주대학교), *Plant Biotechnology Reports*, 2021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 문봉진(GIST), *Current Applied Physics*, 20021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 박덕환(강원대학교), *Research in Plant Disease*, 2021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 박소영(영남대학교), *Yeungnam University Journal of Medicine*, 2021년 2월 1일~2023년 1월 31일
- 박종일(서울대학교), *대한수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 2021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matical Society*), 2021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 정일문(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수자원학회 국문논문집*, 2021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 정재원(한양대학교), *KIEAE Journal*, 2021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 정최경희(이화여대),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2020년 12월 1일~2022년 11월 30일
- 조용훈(KAIST), *The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2021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 조정택(전남대), *대한수학논문집(Communications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 2021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기타 소식〉

- 한국우주과학회 국문학술지 창간 예정(5월 창간 계획으로 추진 중)

신규회원

- 단체회원 이학 분야 1종이 새로이 과편협 회원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단체회원

분야	학술지명	편집인	학회명
이학	<i>Proceedings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of the Republic of Korea</i> (국립생태원보)	권오석	국립생태원

회원현황

- 개인회원 56명
- 단체회원 334종 (273개 학회)
- 특별회원 19기관

### 2021년도 과편집 연간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22 2021년도 제11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온라인)	2/20 Science Editing Vol 8. No. 1 발행	3/10, 17, 24, 31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 (온라인)  3/31 뉴스레터 37호 발행	4/7, 14, 21, 28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 (온라인)  4/23 출판윤리 워크숍 (온라인)		6/30 뉴스레터 38호 발행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7/2 Scopus 워크숍 (온라인)  7/17 제4회 원고편집인자격증 시험	8/20 Science Editing Vol 8. No. 2 발행  8월 중 출판윤리 워크숍(온라인)	9/8 창립 10주년 기념 워크숍(온라인)  9/30 뉴스레터 39호 발행	10/28~29 Scopus 워크숍 (온라인)	11/4 원고편집인 워크숍 (온라인)  11/27 편집인 워크숍  11월 중 출판윤리 워크숍 (온라인)	12/31 뉴스레터 40호 발행

## 단체회원 가입안내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회(과편협)은 과학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 정보를 교환하고 편집 관련 규정을 협의하여 학술지의 질적 향상과 과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본 협의회는 편집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출판윤리 관련 사안 심의, 편집 관련 최신 정보 제공 등 국내 편집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고심하고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단체는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에게는 아래와 같은 혜택을 드립니다.

- 편집인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50% 할인
- 과편협 발행 교육 책자 구입 시 정가의 50% 할인

가입을 원하시는 학술지 편집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세요. 가입 신청서 양식은 과편협 홈페이지([www.kcse.org](http://www.kcse.org))의 'Membership > How to join' 메뉴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과편협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장 윤지수

전화: 02-3420-1390 E-mail: [kcse@kcse.org](mailto:kcse@kcse.org)  
주소: 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2층)

『과편협 뉴스레터』는 회원님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과편협 뉴스레터』를 통해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양식에 기재하여 이메일([kcse@kcse.org](mailto:kcse@kcse.org))로 보내주세요.

『과편협 뉴스레터』는 3, 6, 9, 12월 말일 발행됩니다.

### 회원동정 양식

- 기관 (학회)명:
- 내용: (5줄 이내로 작성해주세요.)
- 기타: 사진, 링크 등 첨부



## 02. 기 고

# 우리나라 연구자를 위한 올바른 COI 관리

노환진 | UST 과학기술정책전문

우리나라가 이제 양 중심의 성장에서 질 중심의 성장으로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거나, 이를 위해 건강하고 풍부한 국가 지식 생태계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연구윤리가 그 생태계의 game rule이 되어야 한다는 담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연구윤리 이야기로 들어가자.

그동안 빨리빨리 대충대충 성과를 얻어왔던 우리에게서 윤리가 거추장스럽고 귀찮은 절차로 보이지만, fast follower에서 first mover로 전환되는 과정에, 미지의 지식세계를 탐험하는 과학자들에게 연구윤리는 필수적이다. 연구윤리는 과학자를 보호하고 연구결과에 대해 신뢰를 높이는 체계화된 행동양식이라는 측면을 알아야 한다. 그동안 우리 과학기술 정책에서는 큰 원칙이 자주 변경되었으므로 제도의 미세한 부분에는 관심을 두지 못했다. 그런데 연구윤리는 이런 미세한 부분에 존재하며, 연구활동의 전반(연구제안서 작성, 연구수행, 데이터 정리, 연구결과 보고, 논문 발표, 기술 이전, 창업, 이해의 충돌 관리, 피험자 보호, 실험동물 복지, 멘토링 등)에 걸쳐 녹아 있다. 그럼에도 우리의 연구윤리 정책은 연구 부정과 연구비 사용에 초점을 두고 있으니 아직 초보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우리 과학기술 정책이 투자(input)와 성과(output)의 관점에서 벗어나 과정(process)으로 눈을 돌린다면 연구윤리의 부족한 모습이 보일 것이다. 즉,

- 우리의 지식이 잘 생산되고 있는가? 연구개발 효율은 어찌하면 높아지나?
- 우리의 지식이 잘 축적되고 있는가? 기술 축적은 잘 되고 있는가? 선진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 우리의 지식이 잘 확산되고 있는가? 산학연 간의 지식 흐름이 원활한가?
- 우리의 연구인력으로 우수 인재들이 모여드는가? 그들의 애로 점은 무엇인가?

• 우리가 직접 양성한 인재가 세계 무대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로 성장하는가?

연구윤리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로 발전해 가고 있으므로,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측면도 이해해야 한다. 문화적 산물인 윤리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려면 문화적 충돌은 피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가장 어려워 보이는 것이 “이해 충돌(conflicts of interest, COI)의 관리”이다. 여기에는 유교적 관계 중심주의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COI를 더 깊게 살펴보자.

COI란 개인의 직무와 그의 사적 이익 사이에 관련성이 생길 때, 그의 직무적 평가·심사·판정이 그의 사적 이익을 위해 결정되지 않았는지 제3자가 합리적 의문을 제기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해관계의 발생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며, 연구·교육활동 또는 공적 활동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충돌상황이 발생하면 평가·판정에 편견이 작용할 수 있고 연구활동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육의 엄격성, 연구의 무결성 또는 기관의 사회적 신뢰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COI는 금전적 충돌(financial conflict), 직무의 충돌(conflicts of commitment), 인적 충돌(personal conflict), 지적 충돌(intellectual conflict)로 구분하지만, 연구현장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혼합되어 나타난다. 연구활동에서 COI가 가장 발생하기 쉬운 경우는 임상시험과 연구자의 창업(start-up)이라고 볼 수 있다.

임상시험은 약품이나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간을 대상으로 시험하는 과정이며 그 시험 결과가 시판승인으로 직결되므로, 만약 제조업체와 연구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다면 임상시험 결과의 정확한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임상시험은 착수하기 전에 기관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연구계획서(protocol)에 제안된 연구에 사용할 모든 의약품·의료기기·생물체제의 특징과 출처를 표시할 것과 학교·학과·개인 계정을 포함하여 연구를 지원하는 데 동원한



모든 재정의 출처를 밝힐 것을 연구과제 책임자에게 요구하며, 이것을 심사하는 절차를 가진다. 선진국은 이런 심사를 전담하는 행정 부서로 'COI 관리실(COI office)'을 설치·운영한다. COI 관리실은 IRB에서 심사하는 피험자 모집 방법, 동의서 양식 및 개인정보 보호와는 달리,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심사한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밝혀지면 COI 관리실에서 'COI 관리 계획(COI management plan)'을 작성하고 COI 위원회(COI committee)에 상정하여 확정하며, 그 관리계획을 이행함으로써 COI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다.

연구자의 창업에서도 유사한 절차를 적용한다. 연구자의 창업에 관해 미국의 대학에서 적용하는 '모범 행동양식(Good Scientific Practice)'을 보자.

- 연구자가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 활동과 개인적 창업 활동은 재원, 인력, 자원 및 지적재산권이 명백하게 구분되도록(혼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연구자의 창업 활동에 대한 시간과 노력이 연구기관의 직무 수행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미국은 1주 1일로 허용된 외부활동 시간을 창업에 활용함)
- 연구자는 외부에서 경영의 책임이 따르는 직함과 역할은 맡을 수 없으며,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도 자문 역할만 제공해야 함(전문경영인 영입)
- 연구자가 기업의 대표자 자격으로 자신의 연구기관과 기술 이전 협상을 할 수 없음(연구자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 자신의 기업으로 이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연구기관의 기술 이전 전담실(technology licensing office)의 객관적 마케팅 분석 결과가 있어야 가능함)

이러한 규범들은 우리에게 매우 낯설다. 일의 순서를 보면, COI를 관리하기에 앞서 무엇이 옳은 행동인지 판단하는 모범 행동양식이 규정되어야 충돌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윤리규범을 정하지 않고 연구자의 창업을 무작정 권장했으므로 이미 COI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 버린 것이다. 그 결과 우리 대학가에는 매우 어색한 모습이 등장한다.

- 오전에는 교수로서 비영리 활동을 하고 오후에는 창업 기업의 사장으로서 영리 활동을 하는 사람이 생겨남(나중에 두 역할

중 하나가 실패할 가능성이 큼)

- 대학의 연구 공간이 곧 창업 공간으로 겸용되기 쉽고, 대학의 재원, 인력, 자원, 지적재산권이 창업 기업과 혼용되어 감사에 저촉되는 경우가 많이 생김

우리나라는 2019년 한 해에 102개 대학에서 281개의 교원 창업 기업이 설립되었다고 한다.<sup>2</sup> 그리고 교원 창업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임상시험도 확대되는 추세일 것이 분명하다. 선진국과 비교할 때 제도적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연구비가 확대되고, 연구과제가 많아지며, 창업이 강조되는 등의 방향으로 평가를 강화해 간다면, 연구자가 선의의 피해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즉, 정부의 방침대로 충실하게 연구하고 남들처럼 창업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COI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이다.

연구윤리란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제도적 장치 없이 규범만 정하고 연구자가 알아서 준수하라고 한다면 많은 연구자들이 힘들어진다. 함정에 빠지기 쉽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연구계에 COI를 관리하는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여야 한다. 연구기관은 COI 관리실과 COI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모든 연구자는 매년 이해관계(재정관계, 외부활동)를 신고·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연구자가 과제 신청, 평가·판정위원회 참석, 연구과제(임상시험) 참여 이전에 COI 관리실로부터 충돌관계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충돌관계가 확인되면 경감·기피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모범 행동양식을 만들어 배포하고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이러자면 결국 대학에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데, 재정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밖에 없다. 연구비가 많은 대학에는 COI에 대한 관리 체계의 구축이 더욱 절실하다. 출연(연)에도 필요하다. 정부가 나서야 할 영역이라고 본다.

## 참고문헌

1. 노환진. 이해충돌의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에 관한 연구. Eum-seong: KISTEP; 2021. p. 3.
2. 교육부. 2019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 Seoul: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2021. p. 72.

## 02. 기 고

# Authorship과 관련된 이슈

김수영 | 한림의대 가정의학과, 과편협 교육연수위원장

Authorship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글을 써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학문 분야 중 가장 유행을 덜 탈 것 같은 윤리 분야에도 나름의 트렌드가 있을 수 있는데, authorship 문제는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핫'한 주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청탁을 받은 듯 하다. 미성년자 저자들의 '아빠, 엄마 찬스' 논란이나, 정치인 자녀의 선물 저자 논란 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authorship 문제는 다른 어떤 주제에 비해서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관심이 다른 나라와 비슷한 상황인지 명백히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명확해 보인다. 글의 방향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authorship 관련 논의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이슈에 대해 정리해 보고 의견을 드리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였다.

첫째, authorship이라는 용어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직 authorship에 대해 통일된 번역어가 없다.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편협)에서는 '저자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웬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다.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는 '저자표시'로 되어 있고, 나무위키 사이트에는 '저자 등재'로 되어 있으며, '저자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연구자도 있다. 모두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문맥에 따라 더 적절한 용어인 경우도 있다. 필자는 '저자 자격'과 '저자표시'의 두 가지로 쓰면 어떨까 생각한다. '저자표시'가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하지만, 문맥에 따라 다소 어색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자 자격'이라는 용어가 문맥상 더 적절한 경우에는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둘째,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에서 특히 authorship 문제가 크게 두드러진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하나의 현상을 하나의 원인만으로 설명하기는 힘들겠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저자 자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데에는 공정성(equity) 이슈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듯하다. 공정성은 최근 들어 우리나라

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 저자 자격 문제가 공정성 이슈와 함께 제기되는 이유는 저자 표기가 연구자에게 크레딧(credit)을 부여하기 때문이며, 논문으로 업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논문에 자신의 이름이 등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논문에 이름이 실려 있지만 실제로 그 논문에 기여한 바가 적다면 이는 공정성에서 이야기하는 '노력에 의한 보상의 원칙'에는 어긋나는 셈인데, 이것이 최근 들어 저자 문제가 그토록 중요하게 부각되는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공정성에는 비례성과 형평성이라는 두 가지 주된 강조점이 있다고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공정성이라고 하면 형평성, 즉 동일한 출발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비례성이라는 개념이 급격히 공정성이라는 개념에 도입되었다. 비례성으로서의 공정성은 "노력에 의한 보상"이라는 능력주의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특히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상을 얻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비례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저자 자격과 관련한 이슈도 이러한 움직임으로 상당 부분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셋째는 무엇이 저자 자격인가 하는 점이다. 저자 자격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기준은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이하 ICMJE)의 권고안에서 제시한 것이다.<sup>2</sup> 이 기준은 모두 네 가지로, (1) 연구의 구상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 (2) 연구 결과에 대한 비평적 수정, (3) 최종본에 대한 승인, (4)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책임을 짐이 그것이다. 이들 모두를 만족해야만 저자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네 가지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모든 분야나 학술지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그래서 위의 기준 중 (1)과 (2)를 "OR"로 묶어서 저자 자격 기준을 완화하자는 제안<sup>3</sup>이 힘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며, Mc-

Nutt 등<sup>3</sup>의 수정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넷째, 저자 자격의 기준을 학문 영역에 관계없이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도 있다. ICMJE 기준이 주로 의학 학술지를 기준으로 제안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와 같이 ICMJE와 유사한 분야(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전통이 강함)도 있고, 수학 분야, 이론 컴퓨터 과학 분야와 같이 저자를 알파벳 순으로 나열하는 분야도 있으며, 인문학과 같이 명백한 지침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자연과학의 경우 저자 자격과 관련해서 표준과 관련된 합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ICMJE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일률적인 저자 자격 적용에는 무리가 따르고 이에 따라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밖에도 저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라든지, 그룹 저자의 허용 여부와 표기 문제, 공동 제1저자 혹은 공동 책임저자의 문제, 데이터에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문제 등 논의가 필요한 이슈는 많

이 남아 있다. 앞서 말했듯 미성년자 저자들의 아빠, 엄마 찬스 논란이나 정치인 자녀의 선물 저자 논란을 거치면서 저자 자격 문제가 갑자기 이슈가 되었지만, 이러한 논란이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로 진행되기보다는 상당히 강압적인 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학문적으로 차분하게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나무위키. 공정[Internet]. Available from: <https://namu.wiki/w/%EA%B3%B5%EC%A0%95>
2.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ICMJE Recommendations (2019 edition) [Internet]. Available from: [https://www.kamje.or.kr/board/view?b\\_name=bo\\_reference&bo\\_id=42&per\\_page=](https://www.kamje.or.kr/board/view?b_name=bo_reference&bo_id=42&per_page=)
3. McNutt MK, Bradford M, Drazen JM, et al. Transparency in authors' contributions and responsibilities to promote integrity in scientific publication. *Proc Natl Acad Sci U S A* 2018;115:2557-2560. <https://doi.org/10.1073/pnas.1715374115>.